

2014년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총평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시범공연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실연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단계별 지원사업이다. 총 4편이 실연심사에 참가하였고, 최종 1편이 우수작품제작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대본, 악보 등 제출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연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였다.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을 기준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수한 창작 오페라 작품을 발굴하는데 있어 시각적 요소의 비중은 최소화하고, 음악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오페라 대본과 음악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종 선정된 '서울오페라앙상블'의 <서천 꿈길, 저편>은 오케스트레이션의 수준이 월등하였으며, 음악 구조에 현대적인 감각과 오페라의 특성이 잘 녹아들었고, 세련된 서법으로 정교하게 작곡되었다. 특히 대본과 음악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어 작품성이 돋보였다. 대본의 내용이 음악적으로 탁월하게 표현되었고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색깔이 잘 표출되었다. 다만, <운영전>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 오페라의 소재를 삼은 것은 참신하나, 어려운 제목에 대한 부분은 추후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천 꿈길, 저편>은 30분간의 시범공연을 통해, 완성될 전작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며, 좋은 창작 오페라 작품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아쉽게도 이번 지원에는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도 시범공연을 준비하며 작품의 수정 보완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라벨라오페라단의 <심청>은 한국의 전통음악이 작품 안에서 원색적이지 않게 응용되었으나, 음악의 통일성, 오케스트레이션의 밀접한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심청'과 차별성이 있는 참신함과 대본과 음악의 조화가 조금 더 이뤄지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창민의 <유랑>은 관현악에 국악과 양악의 소재를 어우러지게 한 시도는 좋았으나, 간극이 커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였다. 음악이 드라마 안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하였으나 드라마의 뼈대와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추후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 심진섭의 <단군왕검>은 국악의 창법을 오페라에 적용한 것은 효과적이었으나, 리듬과 성악라인이 평범하여 다소 지루하였고, 등장인물의 특성이 살지 않는 멜로디 라인이 아쉬웠다. 성악 선율을 살릴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요구되며, 내용 면에서는 상상력 및 줄거리 전

개, 등장인물의 성격 표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선정된 단체에 축하를 보내며, 올 하반기 완성도를 더욱 높여 연말에는 창작산실 대표작품으로 성공적인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 아쉽게 탈락한 작품도 향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 사업을 통해 좋은 창작 오페라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년 오페라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